

대학다양성협의회 창립선언문

대학에서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은 창의적인 학문공동체를 만드는 기본 조건입니다.

다양한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개개인이 대학에서 고르게 성장하고 교육과 연구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다양한 구성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자신과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을 배워나가는 과정 또한 소중한 학습경험이 됩니다. 조직이 크고 구성원이 다양하다고 해서 다양한 사람들 간 교류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고유한 특성을 지닌 대학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대학 다양성 및 포용성위원회는 2016년 서울대를 시작으로 카이스트, 고려대, 서울과기대, 경북대, 부산대 순으로 그동안 6개 대학에 설립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성위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대학에 확산되고 대학의 다양성 의제를 다루는 전담기구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학 간 교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대학 내 다양성 보호와 증진, 다양성 존중 문화 확산에 대한 개별 대학의 노력은 있었으나,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고 변화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또한 세계 대학의 변화에 발맞추고 유엔이 권장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다양성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학다양성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대학의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다양성 의제에 대한 담론 생산,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제고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대학을 넘어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5.25.

경북대학교 다양성위원회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부산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카이스트 포용성위원회(가나다순)